

효성, 탄소섬유 1조원 투자 '소재 강국' 이끈다

문대통령 "효성 도전 적극 지원"
효성 조현준 회장·조현상 사장
전주공장 신규투자 협약식 참석
2028년 생산규모 2만4000t
글로벌 시장점유율 3위 도약

효성이 오는 2028년까지 탄소섬유 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해 '글로벌 톱3 탄소섬유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관련기사 3면>

특히 탄소섬유는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 (하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이번 투자 계획은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효성은 20일 전북 전주시 효성첨단소재(주) 탄소섬유 공장에서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비전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탄소섬유는 그 자체로 고성상 산업이며 연계된 수요 산업의 경쟁력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철을 대체하는 미래 제조업의 핵심소재 산업이 될 것이며, 효성의 대단한 도전과 과감한 실행을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탄소섬유의 미래 가치에 주목해 독자기술 개발에 뛰어 들었다"며 "탄소섬유 후방산업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수소경제로 탄소섬유의 새로운 시장을 열어준 만큼 탄소섬유를 더욱 키워 '소재강국 대한민국' 건설에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투자협약식에는 문 대통령과 조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효성그룹 총괄사장, 지역 국회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함께 했다. 청와대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투자협약식이 종료된 뒤 효성첨단소재 공장증설 현장과 현대자동차 중대 1라인 생산공장을 방문, 임직원을 격려했다.

효성은 2028년까지 탄소섬유 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해 현재 연산 2000t 규모(1개 라인)의 탄소섬유 생산설비를 연산 2만 4000t 규모(10개 라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다. 현



"소재강국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 효성첨단소재(주) 전주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서 수요기업 및 탄소소재기업 대표, 지자체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소섬유 철에 비해 무게는 4분의 1이지만 10배의 강도와 7배의 탄성을 갖는 물질이다. 철에 비해 내부식성, 전도성, 내열성 모두 뛰어나다. 자동차용 내외장재·건축용 보강재에서부터 스포츠레저·우주항공 등 첨단 미래산업에 이르기까지 철이 사용되는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꿈의 신소재'로 불린다. 특히 수소차 수소연료탱크의 핵심소재로 수소에너지의 안전한 저장과 수송, 이용에 반드시 필요해 수소경제시대의 핵심 소재로 꼽힌다.

재 1차 증설이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연산 2000t 규모의 탄소섬유 공장을 완공해 2월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10개 라인 증설이 마무리되면 효성의 글로벌 탄소섬유시장 점유율은 현재 2%(11위)에서 10%로 높아져 '글로벌 톱 3위'로 올라서게 된다. 고용도 400명 수준에서 대폭 늘어나 2028년이면 23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 박광태 ... 커지는 우려의 목소리

"비 전문가·비 경영인 출신"
지역 정치권·경제계 부정 평가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출자자(투자자)들은 20일 초대 대표이사 박광태(76) 전 광주시장을 선임했다. 합작법인명칭은 (주)광주글로벌모터스로 확정했다. <관련기사 2면>

광주시출연기관인 (재)광주그린카진흥원, 현대자동차, 광주은행 등 36개 투자자로 구성된 합작법인 발기인들은 이날 오후 (재)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출범식과 발기인 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선임 소식이 알려지면서 광주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등 중앙 정치권과의 교류가 사실상 단절된 퇴역 정치인이 '광주형 일자리'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면서 사업을 안정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겠다고 보기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광주시장을 2차례 지내면서 특유의 독심을 무기로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줬다는 긍정 평가도 있지만 워낙 고령인데다 비(非)전문가, 비(非)경영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용섭 시장이 2300여 원에 이르는 자본금 모금에는 역할을 발휘했지만 대표이사 선임에는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그러나 "박 전 시장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는 등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노사민정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면서 "특히 중앙 및 경제계와의 가교 역할도 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사전 언짢은 전혀 없었다. 이용섭 시장이 어쨌든 급히 찾아와 '합작법인'은 사실상 광주시민들이 만든 회사다. 주요 투자자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완성차 공장이 자리매김 하려면 도움이 절실하다"고 요청해 수락하게 됐다"며 "주변의 격정과

비판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오로지 시민을 위해,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복무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이 "사전 언짢은 없었다"고 밝힘에 따라 합작법인 출범을 앞두고 막판에 대표이사를 바꾼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개월 전부터 현대차 출신 박모 부시장의 대표이사 선임설이 꾸준히 흘러나왔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박 부시장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렇게 되면 판을 깨자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 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증명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옛 전남도청 복원 전담 추진단 신설 복원사업 속도 낼 듯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복원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체부는 20일 국무회의에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신설 방안을 담은 '문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022년 7월 31일까지 옛 전남도청 본관, 별관, 회의실과 전남경찰청 본관, 민원실, 상무관 등 건물 6개동을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당시 모습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이들 건물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활동 장소로 쓰였으며, 계엄군에 의한 희생자가 발생했던 역사적인 공간이다. 지난 3월에 발표된 복원 기본계획은 광주시와 범시민 대책위 등의 요구안을 반영해 건물 6개동을 1980년 5·18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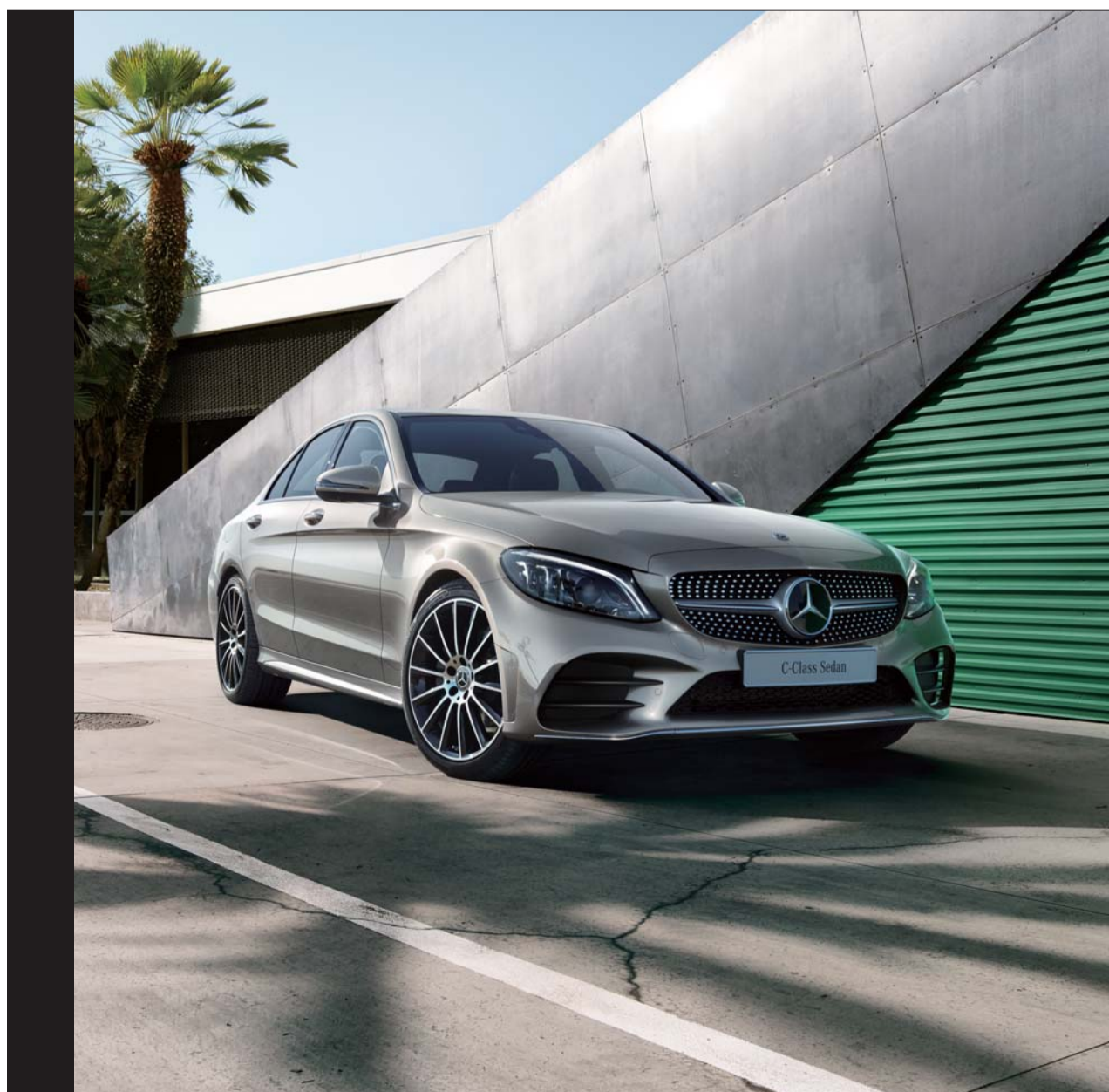
문체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추진단은 복원협력과, 복원시설과, 전시콘텐츠팀 등 2과 1팀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문체부 11명, 국무조정실 1명, 행정안전부 1명, 국방부 1명, 광주시 7명, 민간 전문가 3명 등 모두 24명이 배치된다.

복원협력과는 복원종합계획 수립,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 등 총괄 업무를 맡는다. 복원시설과는 6개 동 건물 복원을 위한 설계·공사, 구조물 안전진단, 문화재 심의 등 복원공사를 전담하며 전시콘텐츠팀은 전시관 운영계획 수립, 전시 콘텐츠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문체부 관계자는 "추진단 신설을 통해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옛 전남도청이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역사 현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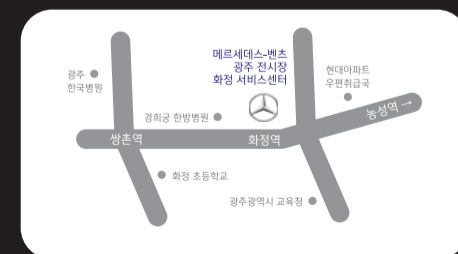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도심서 한여름 정화조 청소 악취 ▶6면
교육단체 "성적 조작 고려고 제재" ▶7면
한국영화 100년 - '겨울여자' ▶18면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시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₂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